

영화 '헤어' 를 보고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27기 문경아 수녀

영화 소개에서 뉴에이지(NewAge)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생각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조지 윈스터의 December을 듣던 시절로 날아간다. 뉴에지 음악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오는 무관했고, 음악선율이 단조롭고 깨끗함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 수녀로 헤어(Hair)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중적인 느낌이다. 시선을 땄 수 없게 빠르게 바뀌는 영상과 음악,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구성,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이 재미있다. 부담감 있게 느껴지는 자기중심적 자유가 거슬리기도 한다. 한편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 할 수도, 이해되어지지도 않아서 회색분자로 고민하던 대학시절이 떠오른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미국의 60-70년대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괴리감이 히피문화 속으로 도피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베트남 전쟁, 존F 케네디의 암살, 마틴 루서 킹 암살 등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 미국사회는 분노와 절망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 같다. 세 부류의 젊은이들이 인상적이다. 나라를 위해 베트남전에 지원한 순박한 시골 청년, 기존의 권위에 반항하는 도시의 히피족, 세상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는 상류층의 젊은이들 그래도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순수함으로 보인다.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군대 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기위해 무작정 떠나는 우정과 친구의 면회를 위해 자유의 표징인 장발머리를 자르는 버거의 모습에서는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강하게 남아있는 영상은 친구대신 전쟁터로 향해 떠나기 위해 줄지어 탑승하던 굳어버린 버거의 모습이 실존적 인간의 모습으로 크로즈업 되어 마음에 남는다.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게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나 이데올로기, 조작된 진실에 의해 떠밀려 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버거를 통해 본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투사한다. 수녀원에서든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전쟁을 반대하는 그 당시의 젊은이의 시위장면이다. 헤어가 주는 의미는 젊음의 순수함으로 기성세대의 문화를 반대 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의식하게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요약정리 잘된 책을 만나면 행복하다. 이 영화가 당시 미국문화와 뉴에이지 그리고 히피를 한편으로 다 볼 수 있어서 기뻐다.